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1월 2일 · 제 380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본부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브릭스(BRICS), 남아공 교역활성화 협의: 냉장화물 등 큰 폭 증가 예상
2. 미국 화주 압단체들, 철도운송 서비스 다변화 요구 본격화
3. COSCO Port, CSCL과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16년 3분기 순이익 감소
4. 인도 자동차 수출 물류시설 업그레이드 필요

| 물류시장동향 |

1.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에 물류센터 건설 예정
2. 베트남 다낭시, 14.8억 달러 규모 항만 건설 계획

| 공지사항 |

1. 2016년 제3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공모(~11/8)
2. 제12회 해외 물류사업 설명회(11/29, LW컨벤션)





물류정책 · 사업동향

브릭스(BRICS), 남아공 교역활성화 협의: 냉장화물 등 큰 폭 증가 예상

-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남아공이 지난주 국가 간 교역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에 모였는데, 이 모임의 최대 수혜자는 브라질의 냉장운송이 될 것이라 예상됨
 - 중국, 인도, 러시아의 잠재 수요 증가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통화 약세, 열대지역 국가들의 많은 양의 식품 수출과 브릭스 국가들의 육류와 과일 수요로 인해 브라질의 냉장 무역이 활황을 맞을 전망이다
- 머스크 선사의 남미동부해안(ECSA, East Coast South America) 담당 이사인 Antonio Dominguez씨는 중국이 현재 브라질의 가장 강력한 교역 파트너이며 냉장 화물 특히 소고기 교역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언급함
 - 브라질 소고기 수출 협회(Brazilian Beef Export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 502% 증가했음
 - 중국은 지난해 8월 16일까지 1년간 1만 2천 TEU의 소고기를 브라질에서 수입했음
 - 향후에는 중국인들의 소고기 소비가 매년 1kg씩 증가해서 2020년에는 5.5kg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대상 소고기 수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이 예측치가 맞다면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은 향후 4년간 현 수준(2015년 기준 소고기 수출량은 140만 톤(metric ton))의 2배가 될 것임
- 브릭스 국가들과의 올해 상반기 무역은 브라질 수입량이 역사적 저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실망스러웠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Dominguez씨가 언급함
 - 브라질 통화인 레알(Real)의 약세가 수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입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상반기 수입량은 연간 기준 3분의 1이 감소했으며 회복될 기미가 없었음
 - 그런데 소매상들은 고객들의 수요 개선을 감지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소비가 개선되어 2017년에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아시아~ECSA 노선에서 CMA CGM, Hapag-Lloyd, Hamburg Sud, Maersk, MSC 선사의 화물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머스크 선사는 작년에 3만개의 냉장컨테이너를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릭스 국가의 냉장 무역 증가에 잘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주문한 6천개를 포함하여 9월 기준 14,800개의 냉장컨테이너를 새로 주문했음
 - 머스크 선사는 브라질에서 중국(상하이, 닝보)과 인도(자와할랄네루항(JNPT), 문드라항, 콜카타항¹⁾)를 주1회 서비스하고 있음

1) Jawaharlal Nehru Port Trust, Mundra, Kolkata



- 모든 다른 해상운송과 마찬가지로 아시아~ECSA 항로도 2014년과 2015년 선복량과 낮은 운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른 항로와 달리 ECSA 화물운임은 2015년에 다시 회복되었음
- 그 이유는 18개월 전에는 아시아~ECSA 항로에 6개의 서비스가 있었으나, 현재는 3개로 줄었기 때문임
 - 상하이에서 브라질 산토스(Santos)로의 현물시장(Spot Market) 운임은 컨테이너 박스당 50달러에 불과했지만, 10월 14일 기준 해상운임은 박스당 2,200달러로 회복되었음
 - 그 반대방향인 산토스에서 상하이로의 해상운임도 상승하고 있음
- 브라질 수출에서 전망이 밝은 부분은 중국으로의 고철과 인도로의 목재와 펄프 수출임
 - 고철의 가격은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인도로의 고철 수출도 시작되었다고 머스크선사 메르코수르(Maersk Line Mercosur²⁾)의 무역과 마케팅 담당 이사인 Joao Batista Momesso씨가 언급함
 - 인도는 연간 8천 TEU의 고철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5천 TEU는 산토스에서 1천 TEU는 마나우스(Manaus)에서 수입한다고 Momesso씨가 밝힘
 - 7천 5백 TEU의 목재제품과 2천 TEU의 목재펄프가 브라질 산토스와 파라나구아(Paranagua)로부터 인도로 수출됨
 - 고철과 목재펄프를 취급하는 인도의 주요 항만은 문드라항과 자와할랄네루항(JNPT)항임

자료 : www.joc.com, 2016.10.19.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e@kmi.re.kr

2) Mercosur(Mercado Comunal del Sur, 남미공동시장)



미국 화주 업체들, 철도운송 서비스 다변화 요구 본격화

- 미국의 농산물, 자동차메이커, 석유·화학 산업체 연합 등 10개 화주 업체들이 철도회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도 운송 서비스 다변화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음
 - 현재 청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화주 업체들은 농산물소매업연합, 자동차 제조업 얼라이언스, 미국화학제품협회(American Chemical Council), 전미연료 및 석유화학 제조업체연합, 미국석유연구소, 염소연구소, 비료연구소, 유리포장연구소, 전미화학제품 유통협회, 전미산업 운송 연맹 등 10개 업체와 관련 연구기관임
 - 청원운동에 참여한 화주 업체들의 화물 물동량은 미국 철도 운송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화주 업체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16년 7월, 미국 지상운송위원회(US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이하 'STB')가 철도 이외의 다른 대체 운송수단을 갖지 못한 화주들에게 좀 더 경쟁력 있는 철도 노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됨
 - 상기 업체들의 화물은 대규모 운송관련 시설의 구비를 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통상 단일 철도 노선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새 규제안은 시설물 주변에 다른 합리적인 대체 노선이 있으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화주들은 그간 스스로를 “노예 화주” (captive shippers) 라고 부르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철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화주들로 이미 지난 7월 미 지상운송위원회의 제안(“competitive switching” 으로 부름)이 나오자 즉각 이를 환영한 바 있음
 - 산하에 700 개의 관련 업체를 두고 있는 전미산업운송연맹(the National Industrial Transportation League, 'NITL' 로 약칭)의 경우, 오직 한 개의 철도 노선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9억 달러의 운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STB의 새 규제안의 법제화를 지지하고 있음
 - 화주들은 그간 자사 화물을 단일한 철도노선을 통해서만 운송하는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어 철도회사들이 사실상 운송 서비스를 독점해왔으며, 그 결과 높은 운임 부담을 화주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철송 서비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철도회사들은 새 규제안이 오히려 수십억 달러씩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공급 사슬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특히 철도회사들은 이와 같은 철송 서비스 대체가 철도산업 자체는 물론 철도망 이용자들에게 많은 리스크와 엄청난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 미국 최대의 철도산업 로비 단체인 전미철도연합(the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AAR)측은 새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80억 달러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규모의 비용이라면 미국에 14만 마일의 철도를 새로 부설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해왔음



- 한편 미 의회는 화주들의 노선 경쟁 입찰을 통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STB에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 상기 규제안은 이해가 엇갈리는 화주, 철도산업의 의견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자료 : www.worldcargonews.com 2016. 10. 31.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COSCO Port, CSCL과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16년 3분기 순이익 감소

- 항만 터미널 운영회사인 COSCO Shipping Port³⁾의 '16년 3분기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37.3% 감소한 4,390만 달러를 기록
 - COSCO shipping Port는 2016년 3월 18일에 CSPD(China Shipping Ports Development Co.,Ltd.)의 발행주식 전량을 인수하고 CSPD의 중국해운터미널 운영 부서의 운영을 맡게 됨
 - COCSCO Shipping Port는 이같은 합병에 따라 회계계정 통합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밝힘
 - 또한 FCHL(Florens Container Holdings Ltd.)의 발행주식 전량을 처분하면서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임
 - FCHL의 수익을 제외한 희석주당이익⁴⁾은 1.47달러(희석주당)로 전년동기 2.38달러(희석주당)에 비해 감소함
- '16년 3분기까지의 수익 또한 전년동기 대비 0.7% 상승한 4억 1,91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순이익은 27.8% 감소한 1억 4,980만 달러를 기록함
 - COSCO Shipping Port는 최근 부진한 글로벌 경제성장과 중국 대외무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3분기 동안 당사 터미널에서의 화물 처리량 증가가 둔화됐다고 밝힘
 - '16년 3분기 COSCO Shipping Port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420만 TEU를 기록함
 - 또한 '16년 3분기까지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7,020만 TEU를 기록함
- 한편 COSCO, CMA CGM, Evergreen, OOCL이 참여한 오션얼라이언스는 이번주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선박공유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
 - 오션얼라이언스의 선박공유협정은 10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임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6.10.26.

박성화 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

3) COSCO Shipping Port 는 COSCO Pacific으로 알려져 있으며 COSCO와 CSCL이 합병되면서 COSCOCS의 항만 터미널 운영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4) 희석주당이익(Diluted earnings per share)은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함. 따라서 기본 주당이익에 비해 주당이익이 감소하여 표시됨(한국회계기준원)



인도 자동차 수출 물류시설 업그레이드 필요

- 인도의 자동차 수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성장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수출관련 물류시설의 열악함과 고비용으로 수출 증가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임
 - 수출 물류 시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고 수준의 자동차 전용 터미널(ro-ro terminal)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태국 같은 경쟁국에 비해 수준이 낮은 수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임
 - 그 해결책은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인도 정부와 자동차 산업은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이러한 방안은 인도의 자동차 산업을 경제성장과 수출 증가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줄 정책안과 기반시설 계획에 반영됨
 - 인도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치를 “Make in India” 프로그램의 엔진으로 자리 잡게 해 줄 인도 정부의 최신 ‘자동차 미션 플랜 2016-2026’ 을 발표함
 - 국가 항만의 현대화 계획인 ‘Sagarmala 항만 개발 프로젝트’ 를 추진함
 - 해당 항만 개발 계획은 자동차 전용 시설(ro-ro facilities)의 계량 작업, 국내연안 자동차 선박 및 내부수로나 철도 운송 수단으로 변경을 촉진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공장에서 항구로 차량을 쉽게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갈 필요가 있음
 - 현재 항만으로의 수출 차량 운송은 대부분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교통 정체로 인한 수출물량의 항만 이송에 지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수출 차량 운송 수단을 도로에서 철로나 복합운송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시행이 필요함
 - 수출물량 대비 높은 항만 관세도 인도의 자동차 수출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됨

자료 : www.automotivelogistics.media, 2016.10.10.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물류시장동향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에 물류센터 건설 예정

-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 북서부 해안에 가까운 러시아 남부 볼가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한 아스트라한(Astrakhan)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설을 추진 중임
 - 물류센터가 건설되면 다양한 지역의 화물들이 집하되어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는 여러 번의 회의를 가졌으며, 긍정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하고 있음
 - 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영토에 투르크메니스탄이 도매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임
 -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스트라한 물류센터 건설을 통해 ‘남북국제운송회랑⁵⁾’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자료 : www.russianconstruction.com, 2016.10.28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5) 남북국제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은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바쿠(아제르바이잔)-차바하르항·반다르아바스항(이란)-मुंबई(인도)를 연결하는 회랑 건설프로젝트로 2016년 8월 8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3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되어 개발 예정인 프로젝트임



베트남 다낭시, 14.8억 달러 규모 항만 건설 계획

- 다낭(Da Nang)시는 14.8억 달러를 들여 리엔치에우(Lien Chieu) 항만을 건설 할 계획 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티엔사(Tien Sa)⁶⁾ 항만의 과부하 해소 전망
 - Tediport(Port and Waterway Engineering Consultant Joint Stock Company)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항만은 정부민간합작(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되며 2개 분야로 구성됨
 - 첫 번째, 분야는 총 U\$4억5938만 비용으로 다낭시 예산과 공적개발원조로 충당하며, 방파제, 진입항로, 기본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입됨
 - 두 번째, 분야는 총 U\$10억2천만 비용으로 다낭시 예산, 은행 융자, 공적개발원조로 마련하고, 항만시설, 운송 인프라, 창고, 작업장, 하역장비 등에 사용됨
- 건설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1단계는 U\$3억3170만으로 연 187만 톤 화물 처리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완공
 - 2단계는 U\$3억5330만으로 연 1753만 톤 처리가능 토크 2030년까지 완공
 - 3단계는 U\$7억9250만으로 연 4600만 톤 처리가능 토크 2050년까지 완공
- Tediport에 의하면, 현재의 티엔사항은 이미 연 처리능력 1040만 톤에 도달하여 증가 하고 있는 중부지방의 화물을 수용할 수 없고, 부대창고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임
 - 현재 다낭시 에서 연 1200만 톤 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음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16, 10, 14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6) 다낭시 대표 터미널로 컨테이너와 여객겸용으로, 1,200m 선석에 50,000DWT급 선박 수용가능



2016년 제3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신청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 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매칭)

조사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최대 40%	최대 20%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 접수기간 : 2016. 10. 25(화) 09:00 ~ 11. 8(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3호
(☎ 044-200-5767)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2차 심사 일시·장소는 별도 공고 혹은 기업에 개별 통지되며, 신청기업은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11월14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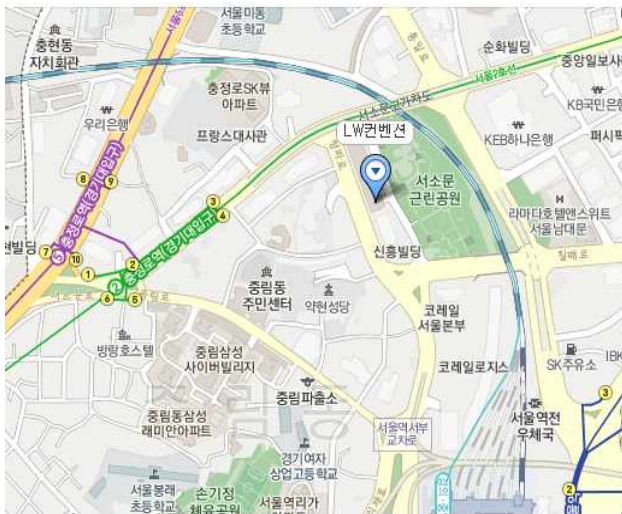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67)로 문의**하시기 바람



제12회 해외 물류사업 설명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2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4:00~18:00
- 장소 : 서울역 LW 컨벤션 크리스탈홀



- ▶ 서울역 이용시
▶ 서부역 롯데마트 방향 800M 직진 후 한국경제신문사 맞은편
- ▶ 지하철 이용시
▶ 2, 5호선 출정로역 4번 출구 (도보5분)
→ 출구방향으로 70M 직진 후 횡단보도 건너편 브라운스톤서울 3층
▶ 1, 4호선 서울역 서부역 출구 (도보10분)
→ 서부역방향으로 나오신 후 한국경제신문사 방향 이동 후 맞은편
- ▶ LW컨벤션 주차장 이용안내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프로그램 추후 공지
- 참가신청 : 2016년 11월 28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참가신청서를 이메일(shinsy@kmi.re.kr / joohye915@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신수용 전문연구원(051-797-4780, shinsy@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4:00~18:00
- 장소 : 서울역 LW 컨벤션 크리스탈홀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회 사 명	
-------	--

참가자 1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참가자 2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 참고 사항

- 신청인원 :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6.11.28.(월) 18:00까지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E-mail (shinsy@kmi.re.kr / joohye915@kmi.re.kr)
- 문 의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신수용 전문연구원 Tel.051-797-4780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주혜 연구원 Tel.051-797-4779
- 기 타 : 참가비 무료